

탄소배출권, 아직까지 수익성 양호

매립지공사, 배출권 판매 7000만원 수익 ... 2017년까지 400만톤 추가

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영국 탄소배출권 전문거래기업에 탄소배출권 15만톤을 판매해 약 7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12월16일 밝혔다.

매립지공사가 이산화탄소 배출권 209만9000톤을 판매하고, 국제 탄소시장의 탄소배출권 가격변동에 따른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할 거래하도록 계약했다.

매립지공사는 첫 거래를 시작으로 4주 간격으로 14회에 걸쳐 전체 계약물량을 거래할 계획이다.

매립지공사는 2011년 2월 탄소배출권 20만톤을 프랑스 에너지기업에게 판매해 약 34억80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2012년 3월에도 1억원을 창출했다.

매립지공사는 2007년 이후 유엔기후변화협약(UNFCCC)으로부터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한 인증을 받아 총 7차례에 걸쳐 탄소배출권 449만2328톤을 발급받은 바 있다.

매립지공사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여 2017년까지 탄소배출권 400만톤을 추가 발급받을 계획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3/12/26>